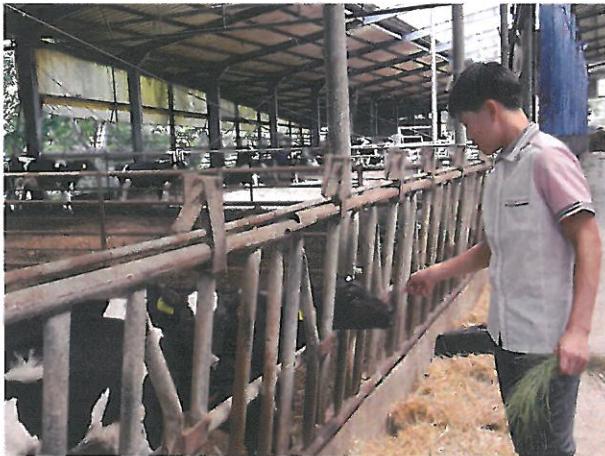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2학년 1반 12번

이름 : 정제서

소감문(사진첨부 가능)



우리는 오전에 불갑사로 갔다. 거기는 산쪽이라 공기와 풍경과 물이 흘러서 보기 좋은 곳이었다. 그쪽에는 부처님을 믿고 살아가려는 스님이 계셨다. 우리를 알려주시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셨다. 어떤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100년이 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두 번째는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이다. 처음 본 것은 돌로 이루어진 들어가는 문이였다. 그리고 들어가면 부처님이 크게 있었다. 멋있었다. 오후엔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했다. 스트링 치즈를 만들었다. 처음엔 딱딱한 치즈를 뜨거운 물에 풀어 보자기 모양으로 3명에서 늘려서 다시 오물고 길게 쭉 늘리고 다시 접고, 소금물에 담그기까지 정말 재미있었다. 처음에 치즈가 만들어졌던 이유와 과정을 보고 치즈는 우유를 마실려고 했는데, 치즈가 된걸보고 그이야기가 독특했다. 만든 치즈는 채소와 김과 소스와 같이 먹었다. 그다음 체험은 젖소에게 먹이주기와 토끼에게 풀 주기를 했다. 젖소중에 새끼는 아주작고 어미는 정말 커졌다. 어미한테는 풀을 주고 새끼한테는 젖을 먹여주었는데 그걸 알고 날 따라오는 새끼들이 너무 귀여웠다. 그다음 피자 만들기이다. 맨 처음 반죽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구멍 뚫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아주 조심히 조심하고 하던 우리의 모습이 생각 났다. 우리가 만든 치즈가 쭉 늘어났던게 재미있었다. 피자는 뜨거워서 아주 맛있었다.(내가 만든거라 맛있었다.) 뜨거운걸 먹고 날씨는 덥고 그래서 그다음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얼음을 양푼에 담고 소금과 소금물을 담아 그위에 양푼에 양푼을 올리고 우유를 담고 저으니 얼음이 되어갔다. 이렇게 만든 아이스크림이라 신기하였다. 아이스크림은 초코 맛으로 더 달콤하게 먹었다. 안 해본 것도 있었는데 경험을 하고 나니 재미있었다.